

미래 성장동력·생활밀착 시책 발굴해 ‘더 큰 장성’ 만든다

군, 내년 221억 규모 126개 사업 추진...24개 부서 참여 반도체산단 배후단지·통합바이오가스시설 등 조성 계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2027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갖고 126건·221억 원 규모의 시책을 점검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김한중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과 소장 등 간부공무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시책 보고회를 열었다.

내년도 시책에는 민선9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군청 주요사업과 국비, 시비 공모사업이 포함됐다. 행정, 관광, 체육, 복지, 농업, 건설, 지역개발 등 3개 그룹 24개 부서가 정부정책과 연계한 신규시책 사업 발굴에 주력했다. 특히 미래 장성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단지 조성,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등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군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반영해 ‘미래 장성형 기본사회 기반 구축’에 힘을 쏟는다.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추진계획 수립과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진원, 남면 일원에는 300만㎡ 규모 호남

권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해 국가산단의 확장성 및 효율성 증대를 도모한다. 서삼면 장산리에는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분산 보관되어 있던 제설, 수방자재, 구호물품, 민방위, 원전 관련 물품을 일괄 관리한다. 황룡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한다.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해 환경 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군민이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내년부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 무료로 현황도면을 작성해 주는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에는 분야별 기술 지원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환경 민원에 대응한다. 자동차에는 등록 자료와 행정정보 등을 분석해 감면 대상자를 찾고 선제적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장성~광주 구간 광역대중교통 환승비를 없애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일조할

계획이다. 군은 발굴된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우선순위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주요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민선9기 2년을 맞는 2027년은 군청 비전인 ‘미래로 도약하는 더 큰 장성장성’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며 “발굴된 사업들이 장성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최근 국가유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만나는 ‘담양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이 토크콘서트 ‘시간과 밤이 흐르는 밤’을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청

이야기가 흐르고 국가유산이 빛난 ‘담양의 밤’

‘밤을 건너는 시간’ 주제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 가족 대항 전우치 놀이 등 인기...5000여명 발걸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만나는 ‘담양 국가유산 야행’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담양 일원에서 ‘밤을 건너는 시간’을 주제로 담양의 국가유산과 역사문화 자원을 아간 문화콘텐츠로 풀어냈으며, 5000여명의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올해 처음 개최된 담양 국가유산 야행은 5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을 통해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9일에는 개막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야행의 막을 올렸으며, 약 300여 명이 창작노래 ‘관방제림 울려펀가’에 맞춰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특별한 가을밤의 시작을 알렸다.

관방제림 일원에서는 관방제림의 역사와 성이성 부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조각공원과 객사리 석당간 일원에서는 담양의 역사문화와 인물을 소재로 한 강연과 공연이 이어졌다. 남산리 오층석탑에서는 가족 대항 전우치 놀이를 마련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세대가 함께 국가유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사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담양 국가유산 아침의 숨’을 통해 야행의 열기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아침을 맞이하며 자연 속에서 걷고 머물며 밤과는 또 다른 담

양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했다. 행사 기간 국가유산을 배경으로 공연과 체험, 강연,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며 방문객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담양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담양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고흥, 드론배달점 사물주소 부여 14곳 설치...위치 확인·편의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최근 드론배달점의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드론배달점 14개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특색을 반영한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이나 장소에 부여하는 주소로,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생활 편의를 높이고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에 도움을 준다. 이번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대상지는 득량도, 상·하화도, 금산면 해상펜션, 고흥만 수변노출공원 등에 있는 드론배달점 14개소다. 고흥의 3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을 상징하는 드론 이미지를 중심으로 고흥의 바다·섬 등 지역의 자연경관을 함께 표현해 ‘드론산업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고흥’의 이미지를 담았다. 사물주소판에 긴급신고 기능과 연계한 QR코드도 표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재 위치 확인과 함께 경찰·소방으로 신속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임지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수와 필리핀 사블라안시 시장 및 대표단 방문단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력을 위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청

화순군-필리핀 사블라안시, 협력 강화 계절근로자 교류...문화·관광 확대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 확대와 농업기술과 문화·관광 분야 확대를 위해 필리핀 사블라안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윌터 B. 마르케스 사블라안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23명이 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양 도시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문은 앞서 화순군이 지난

2024년 1월 사블라안시와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협약의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현재까지 총 23명(지난해 12명·올해 11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왔다. 특히 올해 도입된 근로자 11명 중 10명은 지난해 화순군에서 근무하였던 재입국 근로자로, 지역 농가와 근로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

‘농업의 모든 것’ 나주농업페스타 성황

천년이음 나주배·나주들애잔한우·농업체험 등 호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고 사고 체험하는 농업축제로 마련한 ‘2026 나주농업페스타’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호응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4일 나주시와 나주농업페스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6 나주영산강축제’와 연계해 최근 영산강정원에서 나주농업페스타를 개최, 지역 40여개 업체와 단체, 지역농협 등이 참여한 나주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의 다양한 가치를 선보였다. 농업페스타 전시 공간에서는 천년이음 나주배 포토존과 전시 부스를 비롯해 나주들애잔한우 홍보관, 야생화 전시관 등을 운영해 나주의 대표 농특산물과 지역 농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귀농·귀촌 상담 부스도 함께 마련해 나주에서 새로운 농촌 생활을 꿈꾸는 방문객들에게 지원정책과 정착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시한 나주들애잔한

우를 비롯한 지역 축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플랫폼 물리기와 축산 관련 퀴즈 등 소비 촉진 이벤트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판매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지역 내 40여개 업체 및 단체와 지역농협은 나주배를 비롯한 신선 농특산물과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이며 소비자와 직접 만났고 행사 기간 농특산물 등 판매액은 3억1000여만원을 기록해 지역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탰다. 윤병태 시장은 “농업페스타는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가공품을 선보이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나주 농업과 귀농·귀촌을 널리 알리는 농업인의 축제다”며 “농업인이자 금심을 갖고 소비자는 나주 농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농업페스타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6 나주영산강축제’와 연계해 개최한 ‘2026 나주농업페스타’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청

해남,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7일 접수...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완공을 앞두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주거 안정성 확보와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2년 10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확정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일원에 시비 91억원, 군비 73억원 등 총 164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며, 공공주택 2동, 40세대 규모로 전용면적 26㎡형(원룸형 8세대), 42㎡형(투룸형 20세대), 54㎡형(투룸형 12세대)으로 임대 보증금은 150만~300만원, 월 임대료는 10만~20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일은 2027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오는 27일까지로,

20일부터 2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입주 희망자는 모집 공고문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접수기간 내 해남군청 미래공공주택과(5층) 청년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전입예정자, 무주택자 등으로 발주처의 평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세부 입주자격 및 구비서류는 해남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청년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해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착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58239@gwangnam.co.kr